

유중아트센터와 뵘젠도르퍼의 특별한 인연

유중아트센터는 최근 문화예술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힐링스페이스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덕체' 삼위일체의 인재양성을 추구하는 유중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2층에 자리한 200평 규모의 '유중아트홀 & 뮤직스튜디오'는 130석 규모의 유중아트홀과 1개의 챔버 연습실, 7개의 개인 연습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첨단 방음 및 개별보안장치와 오케스트라 연습에 필요한 팀파니 및 기타 각종 타악기를 보유하고 있다.

3층에 위치한 '유중갤러리 & 창작스튜디오'에서는 신진 예술가를 위한 장학사업 및 지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1월 1일 개관한 1갤러리(4층)에서도 다양한 전시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아트센터 1층에 위치한 세계 최초의 삼림욕 카페 '카페 드 유중'은 내부에서 편백나무 정유 100%를 기화시킴으로써 실제로 삼림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힐링 공간으로 유명하다



INTERVIEW 유중아트센터 정승우 이사장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뵘젠도르퍼를 처음으로 구입한 곳은 유중아트센터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주로 부호들이 개인 소장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아트홀에서 구입한 경우는 아시아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뵘젠도르퍼 피아노가 고가이다 보니 일반인들이 선뜻 구매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돈이 있어도 뵘젠도르퍼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선뜻 구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언제부터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배려로 피아노를 비롯한 여러 악기들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제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좋은 피아노를 쳤을 때 전해오는 감동은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 음악회에 자주 참석하시는 편이신가요?

솔직히 최근에는 많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친분이 있는 예술가들의 음악회는 빠짐없이 참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외에는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가려고 합니다.

일반기업인으로서 음악애호가이신 분들은 많지만, 자신의 회사의 아트홀을 갖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홀을 설립하실 때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나요?

재단 설립의 취지는 '지(知)·덕(德)·체(體)' 삼위일체의 인재 양성이었습니다. 유중재단은 저희 외증조부님의 호를 딴 것인데요, 저희 할아버님께서도 평소 교육사업에 관심이 많으셨고, '지덕체'의 모든 덕목을 골고루 갖춘 인재 양성을 통해 더욱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자라온 제가 결국 작년에 재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진행하는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에 해당하고요, 아트홀은 '덕', '체'에 해당하는 발레·무용·뮤지컬 관련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였다면 이맘때쯤 유중아트센터 지하에 200평 규모의 발레스튜디오가 완성되었어야 하지만, 내부사정상 아쉽게도 진행이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재단이 갤러리 운영으로도 유명한데, 혹시 음악뿐만 아니라 예술 사업 전반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그림, 미술 사업이 주요하지만, '체'에 해당하는 '행위예술' 또는 '뮤지컬'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덕체'를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아트홀을 지으실 때 설계에 직접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설계 스케치를 하고 유중개발 본부장이 현장지휘를 했습니다. 실내 공연장도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완성했습니다.

혹시 샘플링한 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샘플링을 하면 결국 다른 홀의 장점들을 따라 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저희 아트홀은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소리 울림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세 번 정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음악가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또한, 내부에 있었던 너무 많은 기둥이 소리 울림에 방해가 될까봐 부수고 새로 짓기를 반복하며 좋은 음향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추구했던 공간은 지친 현대인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근하면서 편안한 느낌의 '힐링스페이스'였습니다. 저희 건물의 외관은 쇠가 붙어 있어서 좀 딱딱한 느낌이지만 그것과 대조적으로 내부 인테리어는 우드 느낌을 많이 살렸는데요, 모두 힐링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이사장님께서 좋아하시는 클래식 장르가 있으신가요?

피아노와 첼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실력은 아니지만 첼로는 제가 가끔씩 직접 연주하기도 하고요, 첼로는 음역대가 낮아서인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주로 피아노와 첼로가 많이 연주되는 소나타 등을 듣는 편입니다.

어떻게 뵘젠도르퍼를 알게 되셨나요? 뵘젠도르퍼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뵘젠도르퍼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들처럼 피아노 중에는 아마하 제품이 좋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주변에 음악가들은 물론 유럽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도 뵘젠도르퍼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뵘젠도르퍼는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편인데, 가장 큰 이유는 '건반의 수가 타 제품보다 많아서 당황스럽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익숙해지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뵘젠도르퍼를 실물로 만나고, 직접 연주를 해 보니 소리의 울림과 터치감이 다른 제품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뵘젠도르퍼가 전통 있는 오스트리아의 명품 피아노 브랜드로서, 아마하가 인수했지만 뵘젠도르퍼 고유의 제작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마하만의 탁월한 경영 전략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것만을 고집하지 않는 융통성 있고 개방된 자세 말입니다. 그리고 뵘젠도르퍼는 제작 과정이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도 5년 이상 건조해야 하고 조립하는 방식도 기존의 피아노 제작과정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공들여 만든 제품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아직 한국에서는 뵘젠도르퍼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 공식호로서 유중아트센터가 지향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뵘젠도르퍼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활동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기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희 재단은 특정 문화분야를 특화해서 후원하는 편은 아니고요,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편입니다.

힐링을 모토로 아트홀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1학년때까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저런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악기연주를 통해 심신을 치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연장선으로 '힐링 콘서트' 또는 '힐링 그림 전시회' 등을 통해 아트홀을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심적 안정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지덕체' 중에서 나머지 '체'를 완성시키기 위한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 공연 활동을 현재 준비중에 있고요, 유중재단 부지에 300석 규모의 유중그랜드홀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유중 라이징 스타'를 선발해서 뽑고 있는데, 추후에는 '뵘젠도르퍼 콩쿠르' 개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트홀에 대한민국 뵘젠도르퍼 공식호가 있으니까 1등상은 '유중 장학생', 2등상은 '뵘젠도르퍼 장학생'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글 | 이정아